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5. 2.(목) 11:00 < 5.3.(금) 조간 > 배포 2024. 5. 2.(목)

FA-50 단좌형 개발에 650억원 규모 투자

- 민관군 원팀으로 FA-50 미국 진출 등 수출 확대 지원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5월3일(금), 대한상의에서 FA-50의 미국 등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「단좌형 FA-50 개발사업」(이하 단좌 개발사업) 착수 협약식과 「민관군 협력 간담회」를 개최하였다.

* FA-50은 초음속 고등훈련기(T-50) 기반의 다목적 경량 전투기(Fighter·Attacker)로서 현재 폴란드 등 6개국 총 138대 수출

FA-50은 현재 복좌(전후방 조종석과 부조종석) 형태 전투기이며, 앞으로 추진하는 단좌형 FA-50개발사업에는 '24~'28년까지 총 494억원*(국비290억원)이 투입된다.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, 단좌형 기체 개조, 보조연료시스템 추가, 작전 반경 최대 30% 향상, 지상충돌방지장치(AGCAS : Automatic Ground Collision Avoidance System)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, '30년경부터 단좌형 경전투기 세계시장**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.

* 동 정부 사업 494억원 외에 KAI 등 단좌형 개발업체들은 170억원 규모 추가 투자
** FA-50급 전투기 시장은 '23~'31년 2,713대 규모(단좌형 639대) ('22년 Janes 시장분석 컨설팅)

「간담회」에서는, '25년 시작되는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, 공군 전술기 등 총 500여대 규모의 미국 시장 수주 협력 방안, 항공방산 생태계 강화, 무역금융 확대, 국제 공동 연구개발(R&D) 활성화 등을 논의하였다.

* 주요 참석자 : 산업부(산업정책실장), KEIT(원장), KAI(부사장), 방사청(과장), ETRI(본부장), 한화시스템(전무), 항우연(센터장), LIG넥스원(상무), ADD(팀장), 중소협력사(대표) 등

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"FA-50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, 빠른 조달, 가격 경쟁력 등 비교우위가 있는 만큼, 「단좌 개발사업」으로 단좌형 기체플랫폼까지 확보하여 수출 잠재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"고 언급하고, "민관군 원팀으로 미국 등 해외시장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 방산생태계 구축과 연구개발(R&D) 확대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"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제조산업정책관 우주항공팀	책임자	팀 장	김봉석 (044-203-4305)
		담당자	서기관	임형남 (044-203-4306)
		담당자	주무관	류재훈 (044-203-430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